

한일 페미니즘 순환의 (불)가능성*

- 우에노 지즈코의 일본군 '위안부'론을 중심으로 -

임경화**

목차

1. 머리말: '위안부' 문제라는 벽
2. 우에노 지즈코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그 특징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지식인들과의 교류 유형
 - 3.1. 회피: 조한혜정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 3.2. 온정: 박유하와 역사수정주의
 - 3.3. 대립: 김부자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4. 맺음말: 연대의 조건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연구자이자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과 가장 활발히 교류해 온 활동가이기도 한 우에노 지즈코가 한국 페미니즘 연구자들과 나눈 교류의 궤적을 좇았다. 특히 한일간 페미니즘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순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류를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우선 조한혜정과 교류에서는 아시아의 가부장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이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었고 민족과 국가를 상대화하고 개인과 시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반이 공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유되었다. 하지만, 공동의 과제이어야 했을 군사주의나 전시 성폭력 문제는 회피된다. 양자의 회피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의 한계, ‘위안부’ 문제의 내셔널리즘에의 종속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내셔널리즘을 비판하고 젠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우에노의 ‘위안부’ 문제 인식이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을 비가시화하여 역사수정주의에 취약하다는 것은 박유하와의 온정주의적인 교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식민주의를 간과하고 보편주의를 강조하여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뒷받침해 온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어긋난 데에 있다는 것을 김부자와의 논쟁에서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한 한, 한국의 교류 상대지들과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투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 ‘위안부’ 문제, 우에노 지즈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조한혜정, 박유하, 김부자

1. 머리말: ‘위안부’ 문제라는 벽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1948-)는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교토(京都) 대학 재학 시절 전공투 운동에 참여하며 신좌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운동권 남자들로부터 성차별을 겪고 운동의 퇴조기에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을 일상에서 전개하는 한편, ‘전후 가부장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시작하여 마르크스주의이론에도 접속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보다는 가부장제 내지 근대적 결혼, 가족제도의 비판적 해부에 주력해 왔다. 그녀는 구미학계에서도 현대 일본 페미니즘의 대표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저서의 상당부분이 영역 출판되어 많은 대학의 여성학 프로그램에서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일본 페미니즘 연구자 중 한 명이다. 특히 내셔널리즘 비판과 ‘언어론적 전회’ 이후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식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우에노의 연구는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 특히 민주화 이후에 주로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간 한국의 주류 강단 페미니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한일을 넘나드는 연구자 간 교류를 촉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 특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논리적으로 보강하는 역기능을 낳기도 하여, 한국의 우에노 수용의 함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동아시아 페미니즘 교류의 엇갈림을 드러내고 그 순환 여부를 묻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우에노 스스로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서의 한국과의 공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가에 의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유일한 해결로 보고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일부는 **한국 내 여성단체의 내셔널리즘** 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여성단체는 이에 대해 지적하기를 주저했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동조하는 길을 선택했다. ‘가해자 국민 의식’에서였다. 그것은 피해 국민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대등하게 보지는 않는 퍼터널리즘은 아니었다. (...) 일본의 페미니스트는 각각의 생각과 논리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했지만, 그것을 한국의 페미니스트와 완전히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동조와 공투는 다르다.¹⁾

우에노는 어디까지나 가해국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여성단체의 운동을 내셔널리즘의 표출로 규정하고, 이것이 일본 ‘위안부’ 운동과의 공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공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의 여성단체도 실은 ‘가해국 국민 의식’이라는 ‘퍼터널리즘’에 기초해 동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1) 上野千鶴子, 『あえて火の中の栗を拾う』,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教科書・慰安婦・靖國・獨島』, 平凡社, 2006, 245-246쪽.

일본이라는 적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면 성립했을까”라고 한국의 운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의 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원자에게는 한국의 논리가 있겠지만 일본의 지원자에게는 일본의 논리가 있다. 다른 논리로 같은 목적을 향할 수는 있어도 동조할 이유는 없다”²⁾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페미니즘이 ‘위안부’ 문제를 민족차별이나 식민주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위안부’ 운동이 공식 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을 일본에 요구하는 한 일본의 페미니즘과의 ‘공투’는 불가능하고 연대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일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의 여성 혐오 논쟁을 거치며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은행나무, 2012)의 저자로서 다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면서 한일간 페미니즘 순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에노가, 유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절망적으로 느끼는 이 벽을 상대화하는 것은 한일 페미니즘의 월경(越境) 가능성을 전망하고 주체의 확장을 기획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에노 지즈코와 한국 지식인들과의 그간의 주요 교류를 ‘위안부’ 문제 취급방식에 주목하여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한일 페미니즘 순환의 실태를 포착하여 그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우에노 지즈코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그 특징

우에노 지즈코는 1991년 12월 독일 체류 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1924-1997)이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깊은 충격을 받고 귀국 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원활동에 휘말려들었고, 1998년에 출판된 『내셔널리즘과 젠더』는 “‘위안부’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나에게 던진 물음에 대해 내 나름의 있는 힘을 다한 응답”이었다고 한

2) 上野千鶴子·加納實紀代, 「對談 フェミニズムと暴力」, 加納實紀代 編, 『リブという「革命」: 近代の闇をひらく』(文學史を讀みかえる 7), インパクト出版會, 2003, 47쪽.

다.³⁾ 본고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우에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간단히 파악하고자 한다.

우에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민국가와 젠더를 둘러싼 물음”과 “공공의 기억(public memory)’을 구성하는 문제를 둘러싼 역사 방법론”에 근본적인 물음을 촉구하는 문제⁴⁾로 보았다. 우선, 국민국가와 젠더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에노는 ‘위안부’ 문제를 ‘삼중의 범죄’로 파악한다. 전 시 강간이라는 첫 번째 범죄, 전후 반세기 동안 그 죄를 망각한 두 번째 범죄, 피해 여성들의 고발을 부인하는 보수와 사람들의 세 번째 범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우에노가 주로 주목한 것은 ‘현재의 범죄’로서의 두 번째 범죄이다.⁵⁾ 즉, 김학순이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때까지 ‘위안부’ 문제를 묻어 두고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힘과 그것에 대항하여 침묵을 깨게 했던 또 다른 힘을 밝히는 데에 집중했다. 침묵을 강요한 힘은 바로 ‘가부장제 패러다임’이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능욕을 당한 것은 여성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 민족 여자의 정조를 지키지 못했던 남성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이 가부장제 논리가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부정하고 침묵을 강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 억압을 깨 힘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 그 결실로서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운동, 그리고 그 배후에 전 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고양이었다. 이 힘은 강간을 피해자의 치욕에서 가해자의 범죄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고, 이러한 역사 인식의 거대한 변화가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응답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학순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것은, 직접적으로는 “일본군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는 일

3)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이하, 인용은 한국어판에 의한다.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v쪽.

4)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97쪽.

5) 강정숙, 「민족과 젠더 논의에 참가하며」, 『여성과 사회』 제11호, 창작과비평사, 2000, 275쪽.

본정부의 ‘부인’에 촉발된 것이었다는 사실⁶⁾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가 내셔널리즘과 젠더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사실에도 우에노가 관심을 집중했다면, 첫 번째나 세 번째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을 행하며 ‘위안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우에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기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피해자 모델’론이다. 즉, “연행 당시 처녀였으며 완전히 속아서 또는 폭력에 의해 납치되어 도망이나 자살을 피했지만 저지당했다”는 식의 ‘피해자 모델’은 피해자를 ‘순수한 피해자’와 ‘불순한 피해자’로 나누어 그 사이에 경계를 긋는 작용을 하여 “피해자 모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⁷⁾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강제와 임의의 구별에 근거한 창부 차별”과 통하며 (강제 동원된)한국인 ‘위안부’와 (임의 동원된)일본인 ‘위안부’의 구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담론으로 연결된다고 파악했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주의 담론은 가부장제 패러다임의 변종이며, 강간을 민족의 유린으로 받아들여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부정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한국 여성운동은 처음부터 ‘피해자 모델’로 강제성을 강조하며 한국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를 국적에 의해 분할하여 민족주의 담론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⁸⁾ 그런 의미에서 운동단체가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한 가해자 측에 의도치 않게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⁹⁾

하지만 우에노에 따르면, 일본인 ‘위안부’와 한국인 ‘위안부’는 범주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황민’의 일부로서 “양쪽 다 군과 운명을 함께”하며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존재이다. 이들은 여성을 어머니=아내=처녀와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서 김학순의 당시 증언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순 할머니 증언」(<https://www.youtube.com/watch?v=b81Q-z-zZ8w>)

7)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27쪽.

8)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131쪽.

9)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183쪽.

같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과 ‘창부’와 같은 범해도 되는 대상으로 분할하는 근대의 억압적인 성의 이중 기준 속에 방치되어 일본과 한국과 연합국 측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가부장제 국가에 의해서도 결국 문체시 되지 못했다고 한다.¹⁰⁾

이상과 같이, 우에노는 한국, 일본 혹은 연합국 등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오랜 침묵을 강요했으며, 그것을 깨고 ‘위안부’ 문제를 가시화한 한국의 여성운동마저도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가부장제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녀는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귀결인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국경을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¹¹⁾ 그리고 그 해결의 주체는 국가나 국민/민족이나 젠더나 인종 등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나’이며, 나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위안부’의 싸움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치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권리의 ‘대표=대변’을 거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¹²⁾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려는 ‘나’도 일본인으로서 사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국가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했을 때 국가가 수행한 전쟁이라는 범죄는 ‘위안부’ 문제라는 여성의 인권 침해와 살인을 하는 병사가 되도록 강요당하는 남성의 인권 침해 문제로 입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에노의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은 당초부터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에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우에노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듯이 ‘책임 주체’의 문제였다. 즉, 내셔널리즘을 초월했을 때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의 주체로서 일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¹³⁾ 우에노는 제국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피억압 민족의 내셔

10)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41-146쪽.

11)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201쪽.

12)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206쪽.

13) 당시 관련 내용을 지적한 한국어판 서평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현숙, 「누가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였는가: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이 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38

널리즘은 모두 성차별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하기를 거부한다.¹⁴⁾ 우에노에 대한 “피해자의 자매로서의 입장만 있지 가해자의 딸로서의 입장은 없다”¹⁵⁾는 비판은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 것이다.

우에노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상대주의적 ‘역사학 방법론’에 있다. 우에노에게 “문서 사료 지상주의인 실증사학”은 피해자의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객관성, 중립성’ 신화에 매달려 (남성들에 의해) ‘짜여진 역사’로서의 정사(正史)를 ‘공공의 기억’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자유주의 사관’과도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취하며 단일한 역사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증사학’에 대항하여 “여성사의 최대 과제는 ‘침묵당한 소리(silenced voice)’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말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¹⁶⁾이라고 하며, 그 방법론으로 다원주의 역사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언어론적 전회(linguistic turn) 이후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는 객관적 사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인식론적 의심에서 출발한다. 역사학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에 사실(fact)도 진실(truth)도 없으며 단지 특정 시각에서 문제시 되어 재구성된 현실(reality)만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사회과학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이 되었다. 사회학에서 이미 상식이 된 사회구성주의는 역사학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¹⁷⁾

우에노는 역사적 사실을 특정 시각에서 재구성된 현실, 즉 해석의 문제

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강정숙, 위의 글, 2000; 이은경, 「국가 범주를 초월하는 페미니즘, 과연 가능한가(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당대비평』 제10호, 생각의 나무, 2000 등.

14)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93-198쪽.

15)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 외 역,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77쪽.

16)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70쪽.

17)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2쪽.

로서의 인식론적 차원으로 환원한다. 즉, 남성에 맞춰 쓰인 정사의 배후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역사를 재심(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또 다른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가해자 쪽에서 구성된 역사에서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실, 즉 ‘정사’의 신뢰성에 도전한 사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양한 사료를 구사하여 뒷받침하며 사실에 육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도 아닌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1946-) 등의 ‘실증사학’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로 인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본정부의 부인에 맞서 증언을 결심한 김학순의 용기는 이로써 ‘정사’를 바꿀 수 있었다. 즉 ‘위안부’의 증언이라는 “특정 시각에서 문제시되어 재구성된 현실”은 다양한 사료와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분석되어 ‘사실’에 다가갔던 것이다. 반면, ‘애국심’이라는 목표 아래 2차 문헌이나 증언 등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자유주의 사관’파를 ‘실증사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우에노가 실증성과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한 자의적 조작과 같은 탈역사화를 초래하여 가해와 피해의 실재를 상대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에노는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젠더만으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젠더 없이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¹⁸⁾고 하여 젠더를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보고 남성중심주의적인 지식 체계나 역사관, 도덕관과 같은 것을 비판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밀어 올리는, 이른바 젠더적 시점 인식론(gendered standpoint epistemology)에 서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역사성과 같은 다양한 계기로 주체화되는 어

18) 上野千鶴子, 『差異の政治學』, 岩波書店, 2002, 30쪽. 인용은 우에노 지즈코, 이선이 역,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252쪽.

성들의 복합성이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¹⁹⁾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에노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페미니즘 연구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지식인들과의 교류 유형

3.1. 회피: 조한혜정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우에노는 여성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1948-)과 2003년에 「경계에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각자 여섯 번에 걸쳐 공개편지를 주고 받았다. 당시 일본의 월간지 『세계(世界)』와 한국의 계간지 『당대비평』에 동시에 연재되면서²⁰⁾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대화로 주목되었던 이 교류는, 실은 조한혜정 측에 의해 이미 1998년에 요청되었던 것이었다. 조한혜정은 공개편지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있듯이, 1980년대 민족해방과 계급투쟁과의 연결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을 추구했던 ‘여성 평우회’ 계열의 페미니즘과는 거리를 두고 ‘또 하나의 문화(Alternative Culture)’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상의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전자가 “국가와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력을 결집시키고 대중성을 지니면서 거대 권력에 항거하는 운동을 해나갔다면, ‘또 하나의 문화’는 새 언어를 만들면서 새 삶을 일구는

19) Norma Alarcon, “The Theoretical Subject(s) of This Bridge Called My Back and Anglo-American Feminism,” Gloria Anzaldúa, ed., *Making Face, Making Soul: Crea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by Feminists of Color*, Aunt Lute Foundation Books, 1990, p.359; 米山リサ, 『暴力・戦争・リドレス: 多文化主義の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2003, 148-149쪽.

20) 이후 이 공개편지들은 한국에서는 『경계에서 말한다』(생각의 나무, 2004), 일본에서는 『ことばは届くか: 韓日フェミニスト往復書簡』(岩波書店, 2004)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운동에 주력하”며 조직을 거부했다. 그런 탓에 “당시 남성 중심의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여성 평우회’ 계통은 ‘사회주의 여성운동’, ‘또 하나의 문화’는 ‘자유주의 여성운동’이라는 도식으로 이해되곤 했”다고 한다.²¹⁾

1990년대 말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조한혜정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아시아의 압축적 파행적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신보수주의 담론을 비판하며, 자생적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지닌 아시아 지역의 여자들이 함께 연대할 작업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대상 중 한 명으로 우에노를 떠올렸다. 조한혜정은 자본주의화 수준에 따른 사회 성격 변화의 압도적인 규정력을 주장하는 우에노에 공감하며, “한국도 역시 더 이상 대의를 걸고 싸우는 시기는 지났으며, 구체적 일상을 가지고 개인들이 서서히 모여면서 **일상을 정치화**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²²⁾ 구체적인 이슈로는 남성 노동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가정/공공의 분화가 어느 나라보다 강고하게 재상산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 출산 기피현상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러한 가운데, 실은 당시 한국과 일본 여성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회피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정신대²³⁾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안에서 사는 저는 정신대 문제에 신경을 별로 쓰고 싶지 않고,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1학년 신입생들이 **군사주의적인 성문화** 속에서 희롱을 당하는 판이라, 오히려 시급하게 대학 캠퍼스 안에 자유 발

21)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23-125쪽.

22) 조한혜정, 「아시아 지역의 페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당대비평』 제5호, 삼인, 1998, 179쪽. 단, 이 글은 1996년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3) 일본군 ‘위안부’를 가리킨다. 조한혜정은 2003년 당시에도 ‘정신대’ 혹은 ‘중군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언대를 여는 일 등으로 바꿉니다.²⁴⁾(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조한혜정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대의’를 걸고 조직력을 결집시켜 일본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운동으로, 군사주의적인 성문화 속에서 희롱당하는 대학생들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일상의 민주주의운동으로 비쳤음을 추측하게 하는 주장이다. 한국의 ‘군사주의적인 성문화’가 일본식민주의가 남긴 군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일본식민주의 군사문화의 지속으로서 한국전쟁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연구²⁵⁾가 나온 것을 생각하면, 각각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임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민족·국가나 대의와 개인이나 일상의 분리 혹은 대립선이 설정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가 회피되어 있다.²⁶⁾

이 분리선은 2003년의 공개편지 교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들은 공적 가치보다 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여성문제들—서구로부터 주변화된 경험부터 청소년 교육이나 노인 복지문제까지—을 공유한다. 조한혜정은 ‘또 하나의 문화’ 계열의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국가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성찰적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우에노는 “국가보다 내가 소중하다. 내게는 이것이 페미니즘의 ‘기본 중의 기본’”²⁷⁾이라고 하며 국가를 상대화한다. 조한혜정에 따르면

24) 조한혜정, 위의 글, 1998, 179쪽.

25) 김귀옥,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제2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1;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사회와 역사』 제103권, 한국사회사학회, 2014.

26) ‘또 하나의 문화’와 관계를 이어온 재미 여성학자 문승숙(Seungsook Moon)이 한국의 군사주의를 체계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영어 저서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ersity Press, 2005)를 낸 것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저서는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라는 제목으로 2007년에 ‘또 하나의 문화’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일상 속 군사주의’에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제국주의와 관련된 의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27)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29쪽.

이들이 ‘유용’한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일본은 제1세계, 한국은 제3세계”라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역사적으로 엇갈려 왔지만, “전지구적 자본주의적 진행이 하도 빨라서 이제 그 시차를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²⁸⁾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적으로 ‘피해자/가해자’로 엇갈리는 주제는 “나는 요즘 ‘피해자/가해자’의 구도로 빠져버릴 위험이 많은 논쟁의 장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²⁹⁾라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이 책의 서평을 썼던 권인숙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민족·국가도 성찰적으로 이해하려는 책”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일본·한국의 가해자/피해자 구도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논쟁이 없어 아쉽기도 했다.”³⁰⁾고 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에노는 이렇게 말한다.

피해와 가해의 관계는 뒤얽혀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은 여성을 아내, 어머니와 창부로 나누는 가부장제의 분단 지배에 길들여져 ‘위안부’에 대한 차별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창부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은, 일본 여성은 ‘조선인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나 점령군의 거리 매매춘도 문제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 어린 증언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내셔널리즘과 일치할 때에만 여성의 성 피해가 문제시되는 구도**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즘은 가해와 피해를, 적과 동지를, 우리와 그들을, 분명히 나누기 일쑤지요.³¹⁾

우에노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존재’가 갖는 피해와 가해의 중층성과 복잡성이 내셔널리즘에 의해 분단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내셔널

28)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14쪽.

29)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77쪽.

30) 권인숙, 『대화를 통한 자기성찰의 기록: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경제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창작과비평』 33, 창비, 2005, 403쪽.

31)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97쪽.

리즘에 의해서만 주목되는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조한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공유되어 있는데, 내셔널리즘 비판은 양자의 대화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두 갈래의 여성운동은)이런 식으로 나뉘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에 1992년 김학순 씨의 증언으로 시작된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는 곧바로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 언어화**되었고,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가서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표현한바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어린 증언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내셔널리즘과 일치할 때에만 여자의 성 피해가 문제시 되는 구도를 이상하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취와 복지 문제가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사안이 되지 못하고 종교계 분들에 의해 보살피지고 있는 현상 역시 그간에 있어 온 한국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일 겁니다. 기존 운동권과 ‘남매관계’를 맺고 활동해 온 한국 여성운동의 한계라면 한계이지요.³²⁾

여기에서는 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회피에 관여했던 대립선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자유주의 여성운동’이라는 두 갈래의 여성운동 사이에 그어진다.

반대로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이 운동이 자국(한국)을 비판할 때이다. 조한혜정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국 법원에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한 뉴스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이렇게 ‘국가’를 거리를 두고 사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니! 참으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³³⁾ 이에 호응하여 우에노는 “일본과 한국, 두 국가에 줄곧 배신당해 온 할머니들이 내놓은 국적 이탈이라는 래디컬한 회답은 여자가 온 몸을 내던져 국적을 넘는 ‘밑으로부터의 월경

32)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29쪽.

33)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32쪽.

(越境)”이라고 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이 지지에 대해 “이 할머니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 다행이라고, 나는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본인 여자인 내가 말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여,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딸’이 아닌 ‘피해자의 자매’로서의 입장에 철저하고자 한다.³⁴⁾ 우에노는 이전부터 피해 여성과 지원단체들은 개인을 국가의 귀속물로 환원하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일 양국의 가부장제와 싸워야 한다³⁵⁾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피해자들이 “마지막 남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 다름도 아닌 가해국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회피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전시성노예제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 집단적식이나 집단행동을 필요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 이 문제들이 대화의 장에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화의 장은, 조한혜정의 말처럼 그간의 비대칭적 한일관계는 회피되거나, 우에노의 말처럼 한국의 지식인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쿨’해지고 일본의 지식인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조금 ‘뜨거워’지도록 인위적으로 온도가 조절될 때,³⁶⁾ 혹은 ‘피해자/가해자’의 구도에 빠질 위험이 적은 논쟁의 장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었다.

조한혜정과 우에노 사이에서 회피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우에노의 일본군 ‘위안부’ 인식을 발전시킨 것이 박유하(1957-)이다.

3.2. 온정: 박유하와 역사수정주의

온정주의(paternalism)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은 한국 운동단체의 내셔널리즘을 지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며”³⁷⁾ ‘동조’해 온 일본의 운동단체에게 우에노가 붙였던

34)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47쪽.

35)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999, 108쪽.

36)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앞의 책, 194쪽.

레텔이었다. 한데 우에노 자신은 한국 운동단체의 ‘반일 내셔널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박유하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해 왔다. 일본의 ‘간판 페미니스트’로서 우에노는 2005년에 발표된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외이파리, 2005)의 일역본(2006)에 해설을 기고하여 일본의 미디어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우에노는 해설에서 “그녀가 제시한 주도면밀한 논의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한 후, “박유하 씨는 한국 국민이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유하 씨의 의견은 한일 양국의 내셔널리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내셔널리즘의 격분을 사는 것은 박유하 씨에게 리스크가 큰 일이므로 그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마치 불의에 맞서 스스로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의연한 투사처럼 묘사하고 있다.³⁷⁾

이후에도 한일을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발언을 이어온 박유하는 본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2013년에 출간했고, 2014년에는 그 일본어판이 출판되었다. 더욱이 우에노의 예상대로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전쟁의 ‘협력자’ 등으로 표현한 본서의 기술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큰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때도 우에노와 일본의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주저 없이 「박유하 씨의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³⁸⁾에 찬동한 일본과 미국의 54명의 학자들 사이에 이름을 올려, “검찰청이라는 공권력이 특정 역사관을 기반으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한 것에 항의했다.

우에노가 한국 지원단체에 ‘동조’만 하는 일본의 지원단체들을 피해국 국민에 대한 가해국 국민의 ‘퍼터널리즘’이라 비판한 것에 반발하여, 재일

37) 上野千鶴子·加納實紀代, 위의 글, 47쪽.

38) 上野千鶴子, 위의 글, 2006, 306쪽.

39) 박유하 측 홈페이지인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광장으로」(<https://parkyuha.org/>)에서 확인 가능. <http://www.ptkks.net/k/>

조선인 역사학자 김부자(金富子, 1958-)는 오히려 피해자의 증언이나 강제성을 축소하여 “페미니즘이나 젠더사에 ‘심각한 도전’을 한 박유하 씨의 논의를 열심히 옹호”⁴⁰⁾하고 비판하지 않는 우에노의 자세야말로 ‘퍼터널리즘’이라고 되받아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국 국민’인 우에노는 박유하가 ‘피해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퍼터널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비판’을 함으로써 ‘제국의 위안부’론의 출현을 막는 것은 가능했을까. 기존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⁴¹⁾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은 오히려 우에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의 위안부』의 핵심 주장은 정영환도 지적한 것처럼,⁴²⁾ 다음과 같은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 비판에 대체로 담겨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1)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2)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3)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4)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5)‘일본보다 조선이 더 밋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⁴³⁾

40) 金富子, 『『慰安婦』問題と脱植民地主義: 歴史修正主義的な『和解』への抵抗, 『インパクション』 51호, 2007.

41) 金富子, 『上野流フェミニズム社會學の落とし穴: 上野—吉見論争とその後を振り返る』, 『商學論纂』 제58권 5·6호, 2017; 정영환, 임경화 역,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71쪽 등.

42) 정영환, 위의 책, 24-27쪽.

43)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뿌리와이파리, 2013, 205-206쪽.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저항’과 ‘원한’과 ‘적대’를 품은 투사로서의 순결한 ‘민족의 딸’의 이미지만을 담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1)~(5)와 같은 ‘조선인 위안부’ 이미지를 소거한 것이라고 박유하는 말한다. (1)~(5)가 바로 ‘제국의 위안부’론이다. 즉,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일본인 ‘위안부’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1),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애국’적 존재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고 스스로도 ‘동지의식’을 갖고 있었다(2~3)는 주장이다.⁴⁴⁾ 게다가 전시 성폭력 피해자로 표상되고 있는 그들이지만, 실은 그들은 일본/가해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4) ‘조선이 더 밍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일 내셔널리즘에서 자유롭고 가부장의 권위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임이 강조된다(5). 즉 소녀상은 한일 간의 적대(불화)의 표상으로, ‘제국의 위안부’는 화해(용서)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유하의 소녀상 비판은 ‘순결한 민족의 딸’로서의 이미지만을 강조하고 ‘제국의 위안부’와 같은 다른 이미지를 소거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박유하의 비판의 핵심은,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이 이미지에 맞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제의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의 본질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녀상에는 “결과적으로 조선인 위안부는 없”으며, ‘조선인 위안부’의 본질은 바로 ‘제국의 위안부’라는 것이 박유하 주장의 핵심이다.

우선 (1)에 대해 우에노 지즈코의 일본군 ‘위안부’론과 비교해 보자. 박유하는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⁴⁵⁾ 소녀상으로 ‘순결’과 ‘저항’의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의식을 조장하고 유지하며 매춘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매춘부’관을 지탱해주

44) 박유하, 앞의 책, 67쪽.

45) 박유하, 앞의 책, 2013, 204쪽.

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영환도 지적하고 있듯이, 박유하의 소녀상 비판은 실은 우에노의 ‘피해자 모델’론 비판을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다. 물론 미성년 피해자를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박유하의 독특한 주장이다. 신고된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20세 이하이며, 소녀상도 미성년자 징집이 많았던 사실의 반영이지 순결주의를 투영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정영환은 박유하가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한 위치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매춘 전력이 없는 미성년 징집은, ‘추업’에 종사하며 성병 없는 만21세 이상으로 징집을 한정된 일본 ‘내지’와는 다른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인 ‘위안부’ 징집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⁴⁶⁾

하지만 미성년 징집 예외설을 제외하고는 박유하의 소녀상 비판은 우에노의 성노예 패러다임 비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에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매춘 패러다임의 임의성을 단호히 부정하고 “강제적 납치나 감금 상태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강간이라는 점”에서 ‘성노예’의 용어로서의 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성노예 패러다임이 매춘 패러다임의 임의성을 극력 부정함으로써 소녀 이미지의 피해자 모델을 수용하기 쉽게 만든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 모델에서 벗어난 사람들, 즉 연행 당시 매춘 경험이 있다거나 빈곤으로 인해 경제적인 유혹에 넘어가 약간은 눈치 쳤으면서도 승낙했다거나 또는 군표를 모았다거나 한 경우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해 순수한 피해자와 불순한 피해자 사이에 경계가 그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인 ‘위안부’와 일본인 이외의 ‘위안부’ 사이에 분단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⁴⁷⁾

우에노의 강제와 임의의 대립구도가 ‘성노예’와 ‘매춘부’의 대립구도로

46)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일본의 식민주의/남성중심적인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검토한다」,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283-296쪽.

47)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31쪽.

이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강제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조를 강조하는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의 옹호로 이어지는 점 등이 박유하의 논리에 그대로 원용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제성을 주장하면 피해자들의 다양성을 묵살하고 침묵시키게 하는 구조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논리가 작동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군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이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이다. 즉 우에노의 강제성 비판이 국가/군의 책임에 대한 애매함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박유하의 주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는 우에노 주장의 결함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강제 시스템으로서의 ‘위안부’ 제도와 그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의 다양성을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의 강조를 연구자나 지원단체의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묵살과 매춘 차별로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에 의식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김부자는 우에노의 ‘위안부’론이 “역사수정주의의 발호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버전인 『제국의 위안부』에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⁴⁸⁾

우에노에 의해서 개인의 ‘강제와 임의’의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것으로 제기된 피해자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문맥은 박유하에게 집단에 대응하는 ‘위안부’ 개인의 주체성의 강조로 이어진다. 박유하는 지원단체나 운동 세력의 ‘인질’처럼 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해방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이에 따라 박유하가 그리는 ‘위안부’란,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가부장제 국가와 빈곤 차별이라는 사회적 요인 속에서 매춘을 위해 ‘이동’을 강요당한 ‘가라유키’의 후신으로, 가부장제적 공동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주체화된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반일내셔널리즘이나 여성의 인권 의식에 기초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이용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운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욕망을 가진 개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⁴⁹⁾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개인

48) 金富子, 위의 글, 105-106쪽.

49) 박유하, 앞의 책, 257쪽.

의 주체성과 가부장제/운동의 억압성이라는 대립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은 운동의 연대를 파괴하고 체제 옹호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 저항운동을 선협적으로 내셔널리즘으로 정의하는 획일성마저 두드러진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의 핵심은 무엇보다 조선인 ‘위안부’는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애국’적 존재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고 스스로도 ‘동지의식’을 가졌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인식의 뿌리 또한 우에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에노는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이 식민지기 조선인들의 대일협력 사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위안부’ 범죄의 가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도 “한국인 군속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대일 협력자’로 여겨질 수 있다”⁵⁰⁾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가해자로 역전시킬 가능성을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피해와 가해를 상대화하려는 의도가 가로놓여 있다. “‘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인권 침해 담론으로 구성된다면 병사로서 국가를 위해 살인자가 된 것 또한 남성의 인권 침해라고 입론하는 것도 가능하다”⁵¹⁾는 우에노의 발언은, 앞의 (3) ‘위안부’와 일본군을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여기는 기술에서 보이듯이,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에서 반복된다. 박유하가 피해자/한국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편으로 가해자/가해국의 책임을 상대화하여 가해와 피해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동지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은, 한국이 제국주의에 ‘쿨’해지고 일본이 ‘핫’해져 조절된 한일관계에 대한 우에노의 회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몬 클락의 철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갑(x)이 을(y)을 온정주의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을의 어떤 선택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을을 대신해 선택을 하면서 이는 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한다.⁵²⁾ 그렇다면, 한국의 운동단체들이 직접 선택한 운동 전략에

50)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36쪽.

51)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206-207쪽.

연대하는 구제국 시민단체들의 운동방침은 ‘온정주의’와는 무관하다. 이들의 활동은 제1세계 반제국주의 연대운동에서 흔히 보이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구제국에 의해 희생된 구식민지 사회운동의 의제를 채용한다. 이에 비해, 박유하의 글쓰기 내지 운동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며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지원하는 우에노의 자세야말로 오히려 이 ‘온정주의’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공방으로 더욱더 두드러진 박유하와 ‘제국의 위안부’론에 대한 우에노의 온정주의는, 내셔널리즘과 가부장제 비판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수호라는 보편주의적 위치로 더욱더 스스로를 주체화하여, 일본의 역사책임과 내셔널리즘을 비가시화하는 만큼 한일 페미니즘 순환을 가로막는 ‘벽’을 가시화하면서 분단선을 선명히 하는 후과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대립: 김부자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결국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근본 대립은 초기부터 우에노의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에노의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와 남성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젠더 정의’를 절대시하는 ‘보편주의적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주체를 인종이나 민족, 계급 등의 복수의 권력관계와 역사적 위치 속에서 교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⁵³⁾ 이 대립의 최전선에서 우에노와 논쟁을 해 온 것이 김부자이다. 그녀는 역사학자로서 ‘젠더 정의’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를 지향하고 역사책임

52) Simon Clarke, "A Definition of Paternalis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vol.5, no.1, Routledge, 2002.

53) Chandra Talpade Mohanty, "Under Western Eyes: Feminist Scholarship and Colonial Discourses." *Boundary 2* vol.12, no.3/vol.13, no.1, Duke University Press, 1984; 米山リサ, 앞의 책, 2003, 111-157쪽 등.

을 묻는 ‘역사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 주체의 상호교차성을 주장해 왔다.⁵⁴⁾ 이 두 입장 사이의 논쟁의 초점 또한 ‘책임 주체’와 ‘역사학 방법론’에 있었다.⁵⁵⁾

후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김부지는 우에노의 이른바 ‘실증사학’ 비판에 대해 역사학의 입장에서 반론을 전개한다. 우에노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역사에 ‘사실(fact)’도 ‘진실(truth)’도 없다, 그저 특정 시각에서 문제화되어 재구성된 ‘현실(reality)’이 있을 뿐”⁵⁶⁾이라고 하며, 페미니즘 또는 젠더 히스토리에 의한 ‘역사의 재심’으로서 ‘다양한 역사, 다원적인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가 ‘다원적인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정사(正史)’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감적인 ‘신의 눈’에서 쓰인 ‘전체사’도 부정한다. 이 입장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⁵⁷⁾

우에노의 이러한 ‘메타 히스토리’에 대해 김부지는 사료 비판이라는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경시하며, 학문적 절차의 허술함이나 오독, 날조 따위도 다원주의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있으므로,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도 무력할 뿐만 아니라 그에 친화적인 주장이 되었고, 나아가 ‘제국의 위안부’론이라는 ‘새로운 역사수정주의’에 길을 열었다고 한 것이다. 우에노 스스로도 “내 분석은 주로 2차 사료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 탓에 사회학자는 역사학자의 수고를 가로채는 ‘역사의 찬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⁵⁸⁾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54) 金富子, 『継續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 「國民」概念・女性の身体・記憶と責任』, 世織書房, 2011 등.

55) 우에노 지즈코, 앞의 책, 2014, 250쪽.

56)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999, 2쪽.

57) 上野千鶴子, 「ポスト冷戦と『日本版歴史修正主義』」,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編, 『シンポジウム 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青木書店, 1998, 108쪽.

로 우에노는 ‘위안부’ 제도 연구 이해에 있어 초보적인 실수에 의한 중대한 왜곡을 종종 감행한다. 요시미 요시아키가 자신이 1992년에 발견한 방위성의 문서는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문서이고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한 말을 오해하여,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공문서는 없다는 식으로 곡해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⁵⁹⁾ 김부자도 우에노가 관부재판(關釜裁判)과 군사우편저금재판을 혼동한 것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⁶⁰⁾

우에노에서 보이는 학문적 절차의 허술함이나 역사의 경시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론에도 흔히 관찰된다. 더욱이 이에 대한 비판에 박유하는 ‘해석의 문제’, 즉 우에노의 ‘언어론적 전회’론에 기댄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견해는 ‘사실’도 ‘진실’도 부정한 채 특정 시각을 가진 개별 주체들의 ‘현실’의 끊임없는 나열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과 ‘진실’의 부정은 바로 피해자의 기억의 망각이자 소통의 단절로 드러나고 있다. 김부자는 이러한 다원주의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혐오 발언을 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이나 저항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⁶¹⁾

우에노와 김부자 사이의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페미니즘과 내셔널리즘의 관계를 둘러싼 것이다. 우에노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국익을 거래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을 우려하며 한일 양국 페미니즘은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부자는 “일본인 페미니스트가 침략당한 나라 여성들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국경을 초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 및 일본인의 가해 사실을 무마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에노는 페미니즘이 국경을 초월하는 방식에는 ‘제국의 페미니즘’이라는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 있다는 김부자의 우려를

58)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999, 6쪽.

59) 吉見義明, 『『從軍慰安婦』問題と歴史像: 上野千鶴子氏に答える』,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編, 『シンポジウム 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青木書店, 1998.

60) 金富子, 앞의 책, 제7장.

61) 金富子, 위의 글, 2017, 112쪽.

의식하면서도 “페미니즘은 국경을 초월해야 하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여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것으로 젠더를 특권화한다. 하지만 김부지는 일본인 여성에게는 ‘이중적 과제’가 있으며, “일본인 여성들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가해 국민의 일원이다. 그 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책임을 짊어짐으로써 비로소 국경을 넘어선 여성들의 연대가 가능한 것이 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부지는 우에노를 비롯한 일본인 페미니스트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수행했던 ‘제국의 페미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이며, 역사 화해는 “먼저 가해국(민)이 스스로의 역사와 책임을 마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배경으로 전시성폭력의 기억을 봉인당한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탈식민주의적인 페미니즘의 시점이 불가결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⁶²⁾

재미 페미니즘 연구자 요네야마 리사(Lisa Yoneyama, 1959-)는 일본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미하원 결의안을 포함하는 미국의 일본군성노예제의 표상에 관여하는 글로벌(보편주의적) 페미니즘 담론이 가부장제나 남성의 폭력만을 문제시하며 세계의 다양한 여성들의 운동에 관여하려 하지만, 계급이나 인종주의, 식민지 차별 같은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에 무관심하여 미국의 군사(개입)주의와 내셔널리즘에 변혁을 촉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해 왔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서도 발견된다고 했다.⁶³⁾ 우에노의 페미니즘이 갖는 ‘보편주의’ 표상과 역사 경시 또한 일본에서 발호한 역사수정주의에 무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 페미니즘의 대표적 이론가인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는 제1세계 페

62) 金富子, 『『慰安婦』問題と脱植民地主義歴史修正主義的な『和解』への抵抗, 金富子·中野敏男 編, 『歴史と責任: 『慰安婦』問題と一九九〇年代』, 青弓社, 2008, 118쪽.

63) 米山リサ, 『批判的フェミニズムと日本軍性奴隷制: アジア/アメリカからみる女性の人権レジームの陥穽』, 金富子/中野敏男 編, 『歴史と責任: 『慰安婦』問題と一九九〇年代』, 青弓社, 2008. 이와 유사한 비판은 박정미, 『서평: 여성주의는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가?』, 『진보평론』 제5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미니스트들이 ‘억압받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보편주의적인 견해를 제3세계 여성들에게 제시하는 태도에서 식민주의를 읽어낸다.⁶⁴⁾ 우에노의 페미니즘은 미국발 ‘글로벌 페미니즘’의 아류의 역할을 아시아에서 전개하며 다양한 역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주체로 여성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맺음말: ‘연대의 조건’

본고에서는 일본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연구자이자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과 가장 활발히 교류해 온 활동가이기도 한 우에노 지즈코가 한국 페미니즘 연구자들과 나눈 교류의 궤적을 좇았다. 특히 한일간 페미니즘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순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류를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우선 조한혜정과의 교류에서는 아시아의 가부장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이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었고 민족과 국가를 상대화하고 개인과 시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반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공동의 과제이어야 했을 군사주의나 전시 성폭력 문제는 회피된다. 양자의 회피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의 한계, ‘위안부’ 문제의 내셔널리즘에의 종속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내셔널리즘을 비판하고 젠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우에노의 ‘위안부’ 문제 인식이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을 비가시화하여 역사수정주의에 취약하다는 것은 박유하와의 온정주의적인 교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식민주의를 간과하고 보편주의를 강조하여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뒷받침해 온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어긋난 데에 있다는 것을 김부자와의 논쟁에서 알 수 있다.

64) Mohanty, “Under Western Eyes: Feminist Scholarship and Colonial Discourses.”

결과적으로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한 한, 한국의 교류 상대자들과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부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우에노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과의 교류는, 가해국 여성과 피해국 여성이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김부자에게 이 연대의 조건이 먼저 가해 국민으로서 역사와 책임을 마주하는 것이듯이, 우에노의 연대의 조건 또한 명확하다. 그것은 우에노가 2017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여성 혐오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담에 패널로 참석해서 언급한 발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에노는 “진정한 페미니즘은 약자와 약자가 연대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본·한국·중국 세 국가가 가부장제 및 여성 혐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동북아 국가 일본·한국·중국이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데, 그 연대에는 조건이 있다. 우에노는 “호모소셜리티는 여성 혐오로 성립되고 호모포비아로 유지된다”고 하면서도 남성중심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의 연대의 조건이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 혐오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한다. 호모소셜리티가 구조적으로 여성혐오와 호모포비아를 필요로 하며,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도 남성 동성애자들도 이러한 차별구조를 내면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 연대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극복해 가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가는 순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론 속에서 ‘위안부’ 문제는 성 차별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⁶⁵⁾서이고, 여성 억압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특수한 역사나 사회적 상황과 그 안에 놓인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부차시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책임을 떠난 특권적 위치에서의 ‘월경’을 주장하는 한일 페미니즘 ‘악순환’의 구조를 낳고 있다고 하지 않을

65) 최유리, 「진정한 페미니즘은 약자와 약자가 연대하는 것: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지즈코와의 대담」, 『뉴스앤조이』, 2017.07.2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27>

수 없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1-327쪽.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v-279쪽.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1-229쪽.

2. 단행본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이파리, 2005, 1-214쪽.

_____,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배와 기억의 투쟁』, 뿌리와이파리, 2013, 1-327쪽.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 외 역,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1-251쪽.

정영환, 임경화 역,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1-278쪽.

上野千鶴子, 「ポスト冷戦と『日本版歴史修正主義』」,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編, 『シンポジウム 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青木書店, 1998, 98-122쪽.

_____, 『差異の政治學』, 岩波書店, 2002, 1-343쪽.

_____, 「あえて火の中の栗を拾う」,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教科書・慰安婦・靖國・獨島』, 平凡社, 2006, 243-251쪽.

上野千鶴子·加納實紀代, 「對談 フェミニズムと暴力」, 加納實紀代 編, 『리

- ブという「革命」：近代の闇をひらく』(文學史を讀みかえる 7), インパクト出版會, 2003, 4-56쪽.
- 金富子, 「『慰安婦』問題と脱植民地主義歴史修正主義的な『和解』への抵抗」, 金富子·中野敏男 編, 『歴史と責任: 『慰安婦』問題と一九九〇年代』, 青弓社, 2008, 100-121쪽.
- _____, 『繼續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 『國民』概念·女性の身体·記憶と責任』, 世織書房, 2011, 1-260쪽.
- 米山リサ, 『暴力·戦争·リドレス: 多文化主義の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2003, 111-157쪽.
- _____, 「批判的フェミニズムと日本軍性奴隷制: アジア/アメリカからみる女性の人権レジームの陥穽」, 金富子·中野敏男 編, 『歴史と責任: 『慰安婦』問題と一九九〇年代』, 青弓社, 2008, 235-249쪽.
- 吉見義明, 「『從軍慰安婦』問題と歴史像: 上野千鶴子氏に答える」,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編, 『シンポジウム ナショナリズムと『慰安婦』問題』, 青木書店, 1998, 123-142쪽.
- Norma Alarcon, "The Theoretical Subject(s) of This Bridge Called My Back and Anglo-American Feminism," Gloria Anzaldúa, ed., *Making Face, Making Soul: Crea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by Feminists of Color*, Aunt Lute Foundation Books, 1990, pp.288-299.
-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1-272.
3. 논문
- 강정숙, 「민족과 젠더 논의에 참가하며」, 『여성과 사회』 제11호, 창작과비평사, 2000, 271-278쪽.
- 권인숙, 「대화를 통한 자기성찰의 기록: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경계에서 말한다』」, 『창작과비평』 33호, 창비, 2005, 401-404쪽.

- 김귀옥, 「한국전쟁과 한국군위안부문제를 돌아본다」, 『구술사연구』 제2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1, 117-140쪽.
- _____, 「일본식민주의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제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사회와 역사』 제103권, 한국사회사학회, 2014, 85-116쪽.
-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일본의 식민주의/남성중심적인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검토한다」,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279-322쪽.
- 박정미, 「서평: 여성주의는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가?」, 『진보평론』 제5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447-454쪽.
- 소현숙, 「누가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였는가: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한국역사연구회회보』 제3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15-19쪽.
- 이은경, 「국가 범주를 초월하는 페미니즘, 과연 가능한가(우에노 치즈코 지음,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박종철출판사, 1999))」, 『당대비평』 제10호, 생각의 나무, 2000, 475-485쪽.
- 조한혜정, 「아시아 지역의 페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당대비평』 제5호, 삼인, 1998, 161-185쪽.
- 金富子, 「『慰安婦』問題と脱植民地主義: 歴史修正主義的な『和解』への抵抗」, 『インパクション』 51호, 2007, 124-147쪽.
- _____, 「上野流フェミニズム社會學の落とし穴: 上野—吉見論争とその後を振り返る」, 『商學論纂』 제58권 5·6호, 2017, 103-135쪽.
- Chandra Talpade Mohanty, “Under Western Eyes: Feminist Scholarship and Colonial Discourses.” *Boundary 2* vol.12, no.3/vol.13, no.1, Duke University Press, 1984, pp.333-358.
- Simon Clarke, “A Definition of Paternalis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vol.5, no.1, 2002, Routledge, pp.81-91.

Abstract

(Im)possibility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Feminisms : Focusing on Ueno Chizuko's 'Comfort Women' Discourse

Lim, Kyoung-hwa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Ueno Chizuko, a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feminist researchers and activist who has actively communicated with the South Korean feminist movement, and the South Korean feminist scholars. I especially focused on how the issue of Japanese Army's 'comfort women' - which can function as a barometer showing the degree to which the South Korean-Japanese feminist exchanges are possible - has been discussed between them, and classified their exchanges. First of all, in the exchanges with Cho-Han Hyejŏng's, feminist criticism of the Asian patriarchy and nationalism was regarded as a common task. Both feminists shared the basis of liberal feminism, relativizing the ethno-nation and state and emphasizing individuals and citizens. However, the discussions on the militarist sexual violence, which should have become yet another common task, were avoided. The logic which both feminists used to legitimize this avoidance, was their critical stance vis-à-vis the dichotomy of victims and victimizers, as well as the subordination of 'comfort women' issue to nationalism. However, Ueno Chizuko's paternalistic exchanges with Pak Yuha give ample material to find out that, her criticism of nationalism

notwithstanding, her understanding of ‘comfort women’ issue renders the problems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olonialism and war invisible and proves weak in the face of historical revisionism. From Ueno Chizuko’s critical discussion with Kim Puja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e basic reason for that is Ueno’s lack of attention towards the issues of colonialism combined with her emphasis on the universal. It brings her far apart from the postcolonial feminism which underpinned the movement for just resolution of ‘comfort women’ issue. In conclusion, it may be said that, while acknowledging its differences over the Japanese Army ‘comfort women’ issue in the dialogue with her South Korean interlocutors, Ueno Chizuko repeatedly fails in the discussion space predicated upon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ussants.

Key words : ‘comfort women’ issue, postcolonial feminism, Ueno Chizuko, Cho-Han Hyejōng, Kim Puja, Pak Yuha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